

미주한인회와 국제교류 길 열어

강임준 군산시장, 270만 재미동포 대표 3년만의 내한…군산서 회동·감사패 수여 받아

강임준 군산시장이 6일 미주한인회와 간담회를 갖으면서, 코로나19 이후 미주지역의 새로운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교류의 폭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번 미주한인회 군산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3년간 중단되었던 '세계 항우회 고향방문의 날'을 맞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마주호남항우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성사됐다.

시는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6개국 19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다.

특히 민선8기에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 국제교류·다변화를 위해 UN산하기구인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CSTC)와 MOU를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의 입지를 새롭게 다져가고 있다.

또한 전북 자체 최초로 동남아 신흥국가인 베트남 봉파우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미국 콜로라도주 부에 블로시장단과도 우리시에서 해상풍력 발전 정책 간담을 이어오는 등 경제·산업 도시교류의 폭도 속도감 있게 넓혀 가고 있다.

특히, 이날 시가 민선7기 이후 다방면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 부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에서 강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향후 한인회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해 그의 미를 더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개원 100일… 발빠른 행보 이어가

상생의회·열린의회·비른의회 박차 가할 터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7월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해 오는 8일 개원 100일을 맞는다. 익산시의회는 그동안 시민행복과 익산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쉼 없이 달려왔다.

먼저,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구현에 힘쓰며 열한행보를 펼쳤다.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다. 7월 이후 개회한 제243회 임시회부터 245회 임시회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1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9대 초선의원 12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연구회, 폐교활용방안연구회 등 6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활동에 몰입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 겪으로의 의회가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보에 매진했다.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애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7월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해 오는 8일 개원 100일을 맞는다.

로시장을 청취했으며, 태풍 '한남' 북상 시 사전대비를 위해 의원들에게 직접 일선에 나가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바른행보를 이어갔다.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기록표결제도를 시행했으며, 공정하고 청

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청렴결의 대회를 가졌다.

최종오 의장은 "개원 100일을 맞아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펴팽하게 조여 매는 '혜현경강(解弦更張)'의

자세로 초심을 되새기며 더욱 역동적이고 민첩한 자세로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히 시민 곁에 든든한 익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탄탄한 주거 사다리 구축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눈높이 맞춘 지원

익산시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택 입대부터 내 집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패키지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시는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한 주거 안정 패키지 프로젝트 청년호(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보호)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임차부터 구입 월세까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렸다.

패키지는 주택 임차와 구입비 대출 이자·월세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1억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높였고 신혼부부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한 덕분에 100명 모집에 110명이 몰려 사업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신혼부부 배정량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청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와 청년은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이자의 3%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600만원, 청년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 예정인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해당 사업은 주거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 3% 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반려동물 문화축제
FCI 국제 도그쇼 동시 개최

횡금연휴 맹댕이들을 위한 축제 헌비동이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시는 이달 8일, 9일 이를 간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시민법인 한국애견연맹이 주관하는 제16회 익산 FCI 국제 도그쇼 및 2022 익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축제가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2022 익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기획했다. 특히 코로나19로 3년만에 재개된 제16회 익산FCI 국제 도그쇼'와 함께 진행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 섰다.

이번 축제는 8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웅종 토크쇼, 펫티켓 강의,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및 건강검진, 동물보호 정책 홍보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캠페인 등 홍보와 문화체험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보편적 평생학습
도시 중장기 발전 논의

익산시가 누구나 일상 속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하며 '보편적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6일 익산시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평생학습 관계자 및 시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익산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주제로 '2022 익산 평생학습축제'·'시민평생학습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 권인탁 교수의 익산시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중장기 고발표와 5명의 전문가의 익산시 평생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참여자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평생학습 사회에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기반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일상 속 보편적 평생학습 사회를 이끌어 줄 다양한 평생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배움 공동체를 통한 미래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여성 1인점포 안심밸 설치사업' 접수

군산시는 여성 1인점포(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1인점포 안심밸 설치와 여성 1인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스토킹 주거침입 등 여성 취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점포와 1인가구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 1인점포 안심밸 설치사업'은 비상밸을 설치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상황에서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성 1인점포 안심밸은 관내 100개소가 설치대상으로 여성 1인점포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본인 소유의 점포는 제외된다.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여성 1인 가구 및 모자기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 3종을 지원하며 품목은 △동작감지기,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밸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소통 참여고시 공고판)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이메일, 팩스(☎454-9477) 또는 음성통 및 여성가족과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도시재생 선진시설 비교견학

군산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 시설 비교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타 지역의 건물 리모델링과 공간활용, 운영실행에 대한 성공 사례 등 관련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군산 시민문화회관의 특색을 살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자·한경봉·지하준·양세용·윤세자 의원은 오래된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아트플랫폼과 코스모40을 방문했다.

인천 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개항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여러 건물을 복원문화예술 매개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현재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개최하는 등 전시공간 복합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코스모40은 인천 서구의 오래된 산업단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새로 운동장을 접목한 형태의 건축물로 재탄생시켜 2019년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곳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